



제철 음식



반찬가게에서 얼같이 열무 물김치를 한 통 샀다. 보는 순간 밥에 얹어 속속 비벼 먹거나 비빔국수에 곁으로 넣으면 참 맛있겠다 싶었다. 배달 오자마자 먹어보니 아직 덜 익었길래 며칠 됐다 먹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친구가 친정엄마가 담가주셨다며 얼같이 열무 물김치를 한 통 들고 왔다(역시 더 맛있음). '어쩐 이런 우연이 다 있지?' 하고 있었는데 내 SNS에 작년 오늘 사진이라며 열무김치에 밥을 비벼 먹은 사진이 올라왔다. 그뿐 아니라 지난 주에 친정아버지가 친구가 재배한 무농약 농산물이라며 얼같이와 열무를 잔뜩 들고 오시지 않았던가? 그렇구나, 철이구나 제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인가 유난히 제철 음식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 1월에는 과메기, 2월은 바지락, 3월에는 달래와 냉이, 4월에는 주꾸미와 두릅, 5월에는 장어와 매실, 6월에는 감자, 참외, 블루베리, 7월에는 옥수수, 토마토, 8월에는 수박, 포도와 복숭아, 9월에는 굴, 게, 전복, 10월에는 대하, 고구마, 11월 사과, 12월 유자, 배추, 흥합 등등.....

뭐 그 달을 넘긴다고 난리 나는 것은 아니고 그즈음 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다는 것인데 특히 과일만큼은 유난히 계절을 타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딸기를 좋아해서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우리 어릴 땐 (어김없이 등장하는 라떼는 말아야) 딸기의 계절을 봄이라고 배웠건만 이제는 죄다 하우스 딸기라 겨울 딸기가 제일 맛나고 4월만 되어도 끝물이라 맛이 없다. 김치를 12월에 담그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배추와 무가 이즈음 가장 맛있기 때문이다. 더 신기한 것은 겨울 철이 되면 동네 마트는 물론이며 온라인에서도 과메기를 팔기 시

작하는데 평생 과메기를 못 먹어본 나 같은 사람도 얼떨결에 과메기를 구매하게 될 정도로 자꾸 눈에 띈다. 암튼 이렇게 때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철 음식들이 등장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으며 이제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제철 음식 제철 음식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생각해보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제철 음식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눈에 보이면 사고 그런 식이었다. 물론 지금도 엄청 부지런을 떨면서 제철 재료들을 손꼽아 기다리며 산지에서 어떻게 공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제 초당옥수수 나올 때가 되었구나. 이제 블루베리 주문할 때가 되었구나(친구의 친구 부모님이 농장을 하셔서 매년 잘 주문해 먹는다)' 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다.

제철 음식은 맛도 있지만 계절마다 떠오르는 먹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깐. 제철 음식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가장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해줄 뿐 아니라 제철이라 더 맛있고 가격도 좋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나이 들어가는 탓인지,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된 것인지 이제는 나도 제법 제철 먹거리를 찾는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알게 되었다. 봄이 되면 벚꽃 구경,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구경, 겨울이면 눈 구경을 떠나듯 아주 자연스럽게 때맞춰 제철 음식을 챙겨 먹게 된다고 할까? 올해 못 먹으면 내

년에 먹으면 되지 뭐 그리 집착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절은 돌고 돌지만 영원하진 않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기에 지금이 순간을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나름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순간을 만끽하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제철 음식을 찾아 먹으며 고단한 일상을 위로 받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친구가 나눠준 얼같이 열무김치를 아무지게 밥에 비벼 먹는다. 언제나 잘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의 마음이 제철 음식만큼 귀하고 맛있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플러튼 단독 주택 54만불

믿을수 없는 가격의 싱글홈
방 3 화 2 대지 7200 sqft
플러튼 다운타운에서 5분 거리



아직 마켓에 안나온 플러튼 코요테 힐스 플랜4 95만불

최고의 학군 안에 있는
플러튼 코요테 힐스 플랜 4
방 3개 화 3개 2100 sqft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방 4 화 2 1275 SQFT 대지 5800 sqft



부에나파크 콘도타운홀 66만불 2006년 방 2개 화 3 1/2 1632 sqft

Founders Walk위치!! 1층에 방과 욕실, 2층에는 아주 넓고 세련된 주방과 거실, 집안 전체마루, 3층에는 침실 2개와 세탁실, 각 방마다 화장실. 마켓에 오래있지 않을 매물



플러튼 단층집 869천 방 3 화 2개 1658sqft 대지 9500sqft

많은 과일 나무들을 포함한 많은 최근의 업그레이드들.
모든 침실에는 천장 선풍, 유지 보수도 쉽고 적은 아늑한 뒤뜰, 훌륭한 학교, 이웃



플러튼 타운홀 725천불 2077sqft 방 3개 화 2개 (아직 마켓에 안나온집)

24시간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페어웨이 빌리지!! 웅장한 거실과, 웅장한 천장, 벽난로, 무성하고 사적인 공동 구역의 인상적인 경치, 초대형 마스터 스위트룸과 전용 발코니, 1층에 침실 2개와 리모델링 욕실, 플러튼의 중심부 위치.



플러튼 단독주택 859천불 2442 sqft 방 5개 화 2.5 개 대지 7519 sqft

롤링 힐스 스퀘어 크레이그 파크...2층 - 5 베드룸 플러스 패밀리 룸, 2-1/2 욕실, 2,442 Sq. Ft, 2,419 Sq.ft, RV parking, 충분한 뒷마당공간



플러튼 단층 단독주택 918천불 방 3 화 2 1936 sqft 대지 8833sqft

플러튼 최고의 학군 넓고 햇빛이 잘 드는 집, 오픈 패밀리 룸, 대형 거실, 디자이너 조명, 천장 팬 및 크라운 몰딩 전체, 멋진 파티오 라구나 호수 근처, 차고 위쪽에 커다란 다락방, 전기 자동차 충전 가능.

플러튼 타운홀 렌트	플러튼 타운홀 렌트
방 2개 Den 1개 화 2개 초중고 도보 거리 학군 좋은 곳	방3 화3개 4월 입주 가능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2,700	\$3,150

사업체 매매	뉴포트비치 상가 리스
성업/발전 중인 한인 유명 베이커리 한달 순수익 2만불 종업원 운영, E2 가능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9대 피킹 가능 단독 주차장 주위 상권 활발한 변화가 위치 그루밍샵, 커피샵, 델리 등 발보아섬 근처 *비즈니스 대박 포텐셜 자리 *이주 좋은 리스 조건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